

[수필]

◎ 김성옥 (북경)

# 다듬이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에게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있었다.

매칠 있으면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2주년이 되는 기일이어서 설거지를 끝내고 습관대로 폰을 열고 엄마 사진에 눈길을 멈추었다. 마음이 몹시 쓸쓸하다. 그때 마침 '딸랑'하고 우렛 메시지가 도착음이 울린다. 매일 어김없이 문안인사를 보내오는 친구 언니가 동영상과 함께 "좋은 종목 보내니 동생 잘 봐요."라는 글까지 달아보냈다.

"좋은 종목이면?" 혼자 중얼거리며 동영상을 클릭했다니 연결시문화관 무대를 배경으로 연변시랑송협회(송미자 회장) 10주년 기념 경축공연 동영상이었는데 연변의 유명한 시인 리성비의 시 <다듬이>를 각본하여 무대에 등장시킨 다듬이 방치질 소리였다.

때로는 홀로 앉아 때로는 마주앉아 마을 뒤산 웅달샘 한모금씩 뽐으면 안개꽃 피어나고...

송미자 회장님이 리성비시인님의 시를 선택하고 또 정성 들여 새롭게 편집하여 리복자, 김정자, 심영자, 장선숙, 리정희 등 다섯 어머니들이 흰 바탕에 자주색 반화장지거리, 검정 치마에 화려한 필관 동이고 머리엔 흰 수건 받쳐쓰고 반듯한 방치들과 마주앉았다. 어머니들은 우리 조 선족 여성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근로하고 알뜰한 형상을 더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는데 다듬이소리가 너무나도 정겨웠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탁탁!

그러지 않아도 엄마 생각중에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니 마음은 저도 몰래 아득한 추억 속 48년전으로 돌아갔다...

1976년, 내가 오빠를 망 기다리던 연변대학 입학통지서가 도착하자 온 집안이 기쁨에 들끓었다. 그런데 엄마만은 무슨 고민이 있는 것처럼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았다. 이를 날 원인을 물었더니 오빠의 결혼 준비로 송표와 친표를 다 써서 대학가는 나에게 새 이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엄마, 왜 그런 걸 다 걱정해요? 집에서 댔던 이불에다가 학교 가서 씻기도 불편한데 전표 안 받는 색상이 어두운 것으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건 아니지. 대학교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사이고 경축할 일이니 내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꼭 새하얀 이불을 해야지."

이튿날부터 엄마가 연속 3일간 친구들 만나며 노력한 결과 끝내 구했다. 엄마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마냥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며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고 또 상점에서 산 흰 광목천을 새하얗게 바래여 첫날 이불안을 하는데 듣이는 공력과 정성도 그때에 잘 알았다.

엄마는 이불 안감을 머리에 이고 강가로 나가 빨래방치로 팡팡 두드린 후 강물에 헹구고 비틀어 물기를 짰다 짜서 집 울안 바줄에 널고 마르면 또 건어서 강가에 나가 두드리고... 아무튼 하루에 몇번인지 모르고 좋은 해벌에 마르기만 하면 다시 들고 강가에 나가셨다. 이렇게 며칠 반복하니 확실히 그 누르스름하던 광목천이 새하얗게 바래지는 것이 알렸다. 엄마는 또 참쌀가루로 풀을 섞어 이불안에 골고루 뿜어 약한 누기가 있을 때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나중엔 토닥토닥 탁탁 연속 이틀간 다듬이질하여 반들반들한 이불안을 만들었다.

와! 새하얀 첫날 이불안이 이런 신고를 겪어서 나오는구나! 우리 민족은 참으로 깨끗하고 너무 대단해!

여름에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너무 신나게 두드리는 다듬이소리를 듣고 아래집 아줌마는 혹시 누가 결혼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자랑스런 우리 민족 엄마들을 내놓고 또 누가 이런 정성을 담아 자식의 이불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엄마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해 겨울, 엄마는 강가에 나갔다가 바로

나의 이불을 할 때 엄마한테 송표와 친표를 해결해준 그 집에서 아들 결혼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떡하지? 부조를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집에서 자기네 집의 전표가 부족하니 또 친척집 것까지 합하여 얻어주었는데 바벌 때 서로 도와줌이 마땅했다...

드디어 엄마의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70년대에는 결혼식을 집에서 했는데 찰떡은 하기 쉬우니 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나 신랑 신부 큰상에 쓰는 증편은 웬만한 솜씨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여 아예 하지 않는 집들이 많았다.

마침 엄마는 외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증편 만들기와 손두부를 잘 갖는 재간이 있어서 평소애 우리들에게 자주 해먹었다. 이 기회에 엄마는 결혼집 부조로 술 두병 하고 이와 썬비스로 아버지가 불을 때며 은발 증편을 한 '다리' 가득 해드렸다. 이튿날 결혼집에서 란리가 났다. 이렇게 이쁜 떡을 누가 했냐며 칭찬을 하는데 바로 입소문이 나가 그후 결혼하는 집들마다 겨름내기로 엄마한테 청을 들었다.

허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특히 증편은 다른 떡과 달리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먼저 증편 심과 쌀가루 비례를 잘 맞추어 반죽을 하는데 쉽다 되어서 찌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기술이다. 또 수량이 많아 초저부터 한술가락 한술가락 찜가마에 찌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하는 것은 보통이다.

엄마라고 해서 피로한 줄 모르고 집에서 활채어 타시며 혼자 계시는 아버지 또한 얼마나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랴! 허나 오로지 자식들을 위하는 일이고 또 한동네에서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는 일이기도 아버지 역시 자기 걱정 말고 도울 수 있는 때까지 도와드리라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게 하시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탁탁... 친구 언니가 보낸 동영상 속의 어머니들은 여전히 다듬이질을 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더욱 존경하는 엄마 사정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엄마가 내가 대학교를 갈 때 그렇

게 힘든 친표를 구해 새하얀 이불을 해주고 그 은혜를 갚느라 밤을 지새우며 증편을 해준 것도 무척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보물중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는 나의 거울이었다는 것이다.

70년대초, 집제로 농사 지을 때 봄가을이면 생산대에서 집집마다에 딸나무 장만하는 시간을 정해주었다. 그러면 무조건 꼭 그 시간내에 산으로 나무하러 다녀야 했는데 유독 우리 집만이 오빠가 군대에 나가서 엄마와 나 녀자 둘이서 15리 상거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다. 동북의 이른봄, 산등성이 눈도 녹기 전에 신발에 새끼를 동여매고 허리에 점심밥을 차고 산속에 들어가 조막도끼로 자작나무 뿌리를 쳐서 새끼로 단을 묶었고 또 목에 바줄을 걸고 한단한단 겨우겨우 산기슭까지 끌어내린 나무를 생산대에서 소수례를 배치 못하여 도적맞았던 일, 나무를 실어오다 산길에서 소수례를 번져 다시 신고 오느라 밤 7시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던 일, 겨울에 구새목이 얼어붙어 비좁고 신문지를 태워 고드름을 녹이고 28년간 활채어 타시는 아버지를 모시며 소갈 데 말 갈 데 가지 않고 굶은일 다하시면서 언제 한번 눈물 흘리거나 한마디 원망 한 적 없이 항상 힘을 돋구어주셨던 엄마, 엄마는 인생의 험난한 길을 어떻게 밟고 나가야 하는지를 명백히 지도해준 도사이고 스승이시었다.

그런 엄마의 지극정성과 따뜻한 사랑이 나를 반듯하게 키웠기에 나는 10여년간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고 또 남편에 가서 10여년 있었음에도 가정을 위하여 억세게 살아왔고 딸은 바 사업을 잘 완수하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사회에 내놓았으며 지금은 나에게 속하는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탁탁... 핸드폰 동영상 속의 어머니들은 점점 더 신나게 다듬이질을 하고 있다. 나는 두손 모아 간절히 빌고 빌었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깨끗하고 부지런한 미풍양속을 지켜가는 멋진 어머니들의 형상이 더 많이 선보이기를...

## 시/ 아버지 (외 3수) ◎ 최어금

넓은 하늘이시였습니다  
따사로운 해살이시였습니다  
반짝이는 장수별이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  
추석명절의 이 밤에도  
추억에 쌓인 저 달 속에  
생명으로 피어난 빼알간 장미꽃

눈물을 가슴에 품으시였습니다  
눈물을 속으로 떨구시였습니다  
눈물을 마음에 담으시였습니다

아, 달빛이 잔잔히 부서져내리는  
황홀한 한가위날 이 밤이여  
가슴속에 애잔하게 흐르는  
그리움을 달래는 이 밤이여

가정을 떠이고 선 기둥이시였습니다  
평생을 버림목으로 살아오시였습니다  
온갖 압력을 짓누르고 살아오시였습니다

### ◆ 늘 생각나는 어머니 ◆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사신 바다였습니다  
자식들의 고통과 행복을 껴안으시였습니다  
바다 우의 고독한 섬바위시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늘 생각나는 어머니

얼마나 고달프시였을가요  
얼마나 아프시였을가요  
철부지 어릴 땐 미처 몰랐습니다

일평생 자식을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의 마음과  
지극정성인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고이고이 시름놓고 잠드세요!

로심초사 자식 격정에  
여념이 없으셨던 어머니

### ◆ 추석달을 우리러 ◆

보름달 둥근 밤  
사무치는 그리움에  
이슬빛 반짝 스치는 흐느낌  
심심히 그리고 그려봅니다

인자하시고 자상하셨던  
자애로운 성품으로  
자식 사랑하시던 어머니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홀로 앉아  
딸자식의 결혼 첫날 한복을  
한뼘한뼘 손수 지으십니다

오늘도 가슴 한가득  
애잔하게 흐르는 그리움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합니다

자식들 단잠 깨우지 않으려고  
가물거리는 등불 밑에서  
한뼘한뼘 사랑을 수놓는 손에  
붉은 방울 송골송골 솟습니다

'부모 불효 사 후회'라는 말이  
인제야 더 생각나게 합니다

황혼의 밤하늘 바라보면  
아득한 저 하늘가에  
어머님의 빼알간 생명소  
장미꽃으로 피어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고이고이 시름놓고 잠드세요

가슴에 어머니 얼굴 그려봅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흐릅니다  
고스란히 담은 그 눈물에  
어머니의 형상이 비쳐됩니다

### ◆ 참새 한마리 ◆

어머니 비석 우에  
참새 한마리

황홀한 전등불 속에서  
밤새도록 떠오르는 어머니 모습  
그리움이 대롱대롱 매달려  
가슴이 몽글 젖어만 갑니다

우두커니  
홀로 앉아

어머님이 그렇게 따뜻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황홀하게  
어머님이 그렇게 반짝이는 별빛임을  
어릴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눈망울 톡톡톡  
누구를 그리워하나

어머님의 따스한 사랑이  
어머님의 아름다움이  
감격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걸

세상 떠난 설음 북받쳐  
말 마중 나왔을가

그리워 짹짹  
보고 싶어 짹짹

하늘엔 몽개구름  
오도 가도 없는데

참새 한마리  
홀로 앉아 무얼 생각하나

살아생전  
내 어머니처럼

[수필]

◎ 전영실

# 깨끗한 도시환경을 두고 한마디



쓰레기 버려서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평일과 달리 쓰레기장사 두개에 쓰레기가 푹푹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쓰레기도 반자동차는 실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웃가지 보따리는 녀마군들이 뚜져 놓았는지 얼얼덜덜한 양털세타머 솜옷, 여름치마, 양말짝 등이 이리저리 뒹굴고 또 약과 보따리도 여러개 널려 있었다.

어느 집에서 이사하느라고 이렇게 란장판을 벌렸을가 반신반의하는데 한 할머니 말로는 요즘 이 동네에서 혼자 살던 한 로인이 사망했는데 그 집 손자, 며느리 친척들이 무슨 집을 정리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사놓았는가 하면서 투덜거리

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말을 듣고 보니 그 옷, 약과들과 쓰레기는 사망자의 가족에서 내다버린 것이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되는대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주위 환경이 안스러울 지경이다.

시민 자질이 문제시되는 면도 있겠지만 관리부문의 관리가 차하고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주되는 원인이라고 느끼는 바이다.

생활쓰레기가 많은 반면에 건축쓰레기도 상당하고 인간, 가축 등 동물들의 배설물도 일정한 비례를 차지한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발전에 정비례되는 조치가 없으면 발전할수록 뒤따르는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게 존재하게 된다.

옛날보다 향상된 생활환경 때문인지 복장이 집집마다 엄청 큰 부피로 늘어나고 있다. 옷장마다 푹푹푹푹 채워진 옷들이 눈이 모자라게 안겨온다. 여름옷, 겨울옷, 사계절이 선풍한 동북의 일기차 때문에 옷의 종류가 가지가지 다양하다. 속벌, 겹벌, 양복, 캐주얼, 야회복, 나들이옷, 심지어 잠옷까지... 이렇게 가지가지 많은 옷들이 새것으로부터 입고 쓰고 반박되는 과정에 판다고 낡고 버릴 때가 되어온다. 망자들의 유물인 옷도 상당한 비례

를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구출해야 한다.

일부 발달국에서는 이런 옷들을 처리할 때 옷의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첨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청리 유관부에서 그 낡은 옷을 수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옷을 처리하려는 집에서 허더이 옷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유관 재활용 부문에서 계획적으로 낡은 옷을 수거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버릴 때가 된 옷에도 필경은 아쉬움이 남아있고 정이 있다. 옷이 내 몸을 덮쳐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쁜 날개로 되어 여러 장소를 드나들게 하였으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옷들을 쓰레기 버리듯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옷을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일종 몰상식한 표현이다.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애심상자가 있다. 나는 철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깨끗이 세탁하고 종류별로 나누어서 애심상자에 넣는다. 그러면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수요일은 일부 지역에 무상지원한다. 이것도 관찮은 애심활동에 속한다. 나라가 크고 지역에 차별로 아직도 비교적 낙후한 지역은 옷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망자의 옷이라 해도 새것이라면 분류하여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도 관찮은 방법이다.

수요일은 가까운 친인척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집중하여 소각해버린다. 그러면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생하는 오염 때문에 우려가 생긴다. 하기에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시간에 소각하고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집중된 도시는 인간의 생활밀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독신족과 세집살이하는 튜동인구와 개체호들이 비교적 많이 늘어나서 또 다른 쓰레기 생성과 처리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시되는 일면이다. 립시 거주인들은 그 아파트단지의 위생관리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

립시 주민이어서 그 지역에서 일시 살다가 푹 털고 가버리면 만사대길이라는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집에 입주할 때에는 이것저것 수요 이상으로 사들인다. 한 일년 아니면 만년 정도 살다가 집을 주인에게 인계할 때면 쓸 것, 못쓸 것 술한 웃가지와 주방 용구, 침대 용품을 가져들이는 대로 내버린다. 그런 사회적 현상이 또 다른 심각한 오염원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 대 인간이 호상 융합하여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텀포 빠른 현 시대에 역시 피면할 수 없는 튜동인구 흐름속들이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중관리와 각각에 의거해야만이 철저하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제적 수단과 책발이 따라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다 싶이 발달국에서 처럼 쓰레기를 버려도 그 쓰레기 크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면 쓰레기 원천을 감소하는 데 아주 큰 결정적 역할을 놀 것이다. 문앞에 쓰레기를 내어놓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의식은 어딘가 문명시민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제집안만 깨끗하면 환경위생은 남의 일인 것처럼 만신 쳐다보듯 전혀 무관심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집앞에 쓰레기 산이라면 그 집이 무사할가? 일시는 무사하다 쳐도 결국은 자신들이 그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찌기 각성하고 알맞고 효과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도시

살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지수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생활쓰레기외에도 애완동물들의 무차별한 배변도 꼬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단지의 잔디밭과 꽃밭은 애완동물들이 소일 보는 장소이다. 견주들은 동물들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배변하도록 방치한다. 결국은 사처에 드러난 것이 오줌자리와 똥무지이다.

겨울이면 모든 것이 경직된 환경이고 기온이 령하여서 심각한 냄새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제 철철부터 풀치거러다.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공기 청정력이 못한 날이면 그 불쾌한 냄새가 코를 지긋게 자극한다.

환경위생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심부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사는 주택가 주변이 생활쓰레기가 몸살을 앓으면 우리의 생체가 무난하게 건강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후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녹색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미루어 버릴 수 없는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